

“두려웠던 홀로서기...막상 해보니 꿀잼!”

미니앨범 '레코딩' 내고 새 도전 타이틀곡엔 '거침없는 유주' 표현 멤버들 한결같이 서로 응원해줘 날 담아내는 앨범 계속될거예요

여섯에서 하나가 됐다.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던 멤버들은 이전 없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 유주(25)가 18일 첫 번째 미니앨범 '레코딩(Rec.)'을 발표하고 솔로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낀 것도 잠시, 이제는 “다양한 재미를 만끽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사실 그룹의 일원에서 솔로로 처음 출발하는 많은 이가 그렇듯 유주도 설렘과 동시에 “혼자 모든 걸 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돌아봤다.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멤버들이 채워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보니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껏 다뤄보지 않은 감정들로 곡을 만드는 재미도 느끼고,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에 두려움을 “한 꺼풀 벗는 느낌이라 겁도 없어졌다”고 자신했다.

첫 시도가 어려울 뿐이지 막상 도전을 하고나니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유주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해체 이후 멤버 처음으로 솔로로 데뷔했다. 멤버 가운데 은하, 신비, 엄지는 다음 달 새 걸그룹 비비지로 재데뷔를 앞두고 있다.

“멤버들과 함께한 세월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게는 영원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한결같이 서로를 응원해 줘요. 티저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소원 언니가 농담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돌려본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맙쥬요.”

유주는 그룹에서 메인보컬을 맡아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핑거팁’, ‘귀를 기울이면’ 등의 히트곡을 통해 가창력을 뽐냈다. 솔로 앨범에서도 이 때



가수 유주가 18일 첫 번째 미니앨범 '레코딩' 발매기념 온라인 기자회견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력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음반에는 타이틀곡 ‘놀이’를 비롯해 ‘배드 블러드’(Bad Blood), ‘겨우, 겨우’, ‘데킬라’, ‘블루 노스탤지어’(Blue Nostalgia) 등 총 5곡이 담겼다.

타이틀곡은 같은 소속사에서 한솔밥을 먹는 싱어송라이터 찬슬러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레코딩’은 모든 녹음과 녹화가 시작할 때 빨간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 순간

에 느낄 수 있는 좋은 긴장감을 담았어요. 타이틀곡의 ‘킬링 포인트’는 거침없는 유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장난스럽고 유쾌한 느낌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볍고 허무하다는 반대의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 점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섞고 싶었어요.”

유주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데뷔 앨범부터 여러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송 캠프’에 참여

해 아이디어를 얻어 작업했다. 또 “한정판” 느낌을 주고 싶어 대중가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악기인 가야금을 사용하는 등 공을 들인 만큼 다음 앨범에는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 고민에 빠졌다.

“이번 음반처럼 저를 담아내는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저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해서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쇼윈도’ 최종회 시청률 10.3%...채널A 역대 최고



채널A 10주년 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쇼윈도)이 10%대 시청률을 돌파하며 막을 내렸다. 19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종영한 ‘쇼윈도’ 최종회는 10.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 기록이다.

‘쇼윈도’는 패션회사 상속자 송윤아가 남편 이성재와 미술감사 전소민의 불륜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는 미스터리와 막장 코드를 녹여 인기를 끌었다. 마지막 회에서는 악의 축이었던 이성재와 전소민이 죄값을 치러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겼다.

BTS 후보 오른 美 그래미 어워드, 4월 3일 개최



그룹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미국 그래미 어워드가 4월 3일 개최한다. 19일(한국시간)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제 64회 그래미 어워드 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다.

애초 이달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을 열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연기했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후보에 올랐다.

예천양조, 영탁과 모친·소속사 대표 상대로 고소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가수 영탁과 분쟁을 벌여온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과 그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했다. 19일 예천양조는 “매출과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영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천양조와 계약해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갑질로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영탁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 출연 의혹 ‘가면토론회’ 2회만에 종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JTBC 파일럿 프로그램 ‘가면토론회’가 방송 2회 만에 종영한다. JTBC는 19일 “일부 출연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익명의 패널이 논리로 토론을 벌인다는 포맷 특성상 방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녹화본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정구 편성도 불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등 각종 이슈에 대해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논객들이 토론을 벌이는 내용이다. 시청자 사이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는 추측이 커지면서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상습도박 S.E.S 출신 슈, 4년만에 사과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S.E.S 출신 슈(유수영)가 4년 만에 사과했다. 슈는 19일 “처음 시작했던 도박이 점차 규모가 커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에 몰두하게 됐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패가망신했다. 개인파산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4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찬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판매해 보기도 하고, 지인 식당에서 일했다”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중장년층부터 젊은세대까지 인기몰이...배우 지현우의 재발견

‘신사와 아가씨’ 첫 가족드라마 주연 “박선생 누나” 장면 패러디로 공유 “로코 주연에서 아버지 연기 새롭다”

배우 지현우의 ‘재발견’이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선보이는 독특한 말투와 행동이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나 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연기대상 수상 이후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 시청자의 호기심까지 잡아끌면서 시청률과 화제성 차트에서 모두 선전하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는 아내를 잃은 40대의

재벌 총수 지현우가 세 아이를 돌보는 20대 가정교사 이세희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린다. 최근 이들이 각종 역경을 딛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드라마의 시청률은 33%(닐슨코리아)까지 상승했다.

화제성은 특히 지현우가 연기대상을 수상한 이후 증폭했다.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1주차(3~9일) 차트에서 드라마 부문 2위, 지현우와 이세희는 출연자 부문 3·4위에 올랐다. tvN ‘고스트 닥터’, MBC ‘트레이서’ 등 미니시리즈와 경합해 연은 성과다. 이전에는 5위권 안팎에 머물렀다. 드라마는 이세희의 출생의 비밀 등을 그

리며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온라인상에서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활용되고 있다. 지현우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20대로 돌아간 모습이 대 표적이다. 이세희를 향해 “박선생 누나!”라고 외치는 장면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영상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에는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황당해하는 반응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진다.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후 지현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도 ‘짤’로 인기가 높다.

지현우는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주로 소화했으나 가족드라마 주연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세 아



배우 지현우가 주연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KBS 방송 캡처

이 아버지를 연기하는 지현우가 새롭게 느껴진다”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2004년 밴드 더 넛츠의 멤버로 내놓은 대표곡 ‘사랑의 바보’도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신화 멤버 앤디, 아홉살 연하 아나운서와 결혼

제주 MBC 아나운서와 1년 넘게 열애 SNS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룹 신화의 멤버 앤디(이선호·39)가 결혼한다. 상대는 9살 연하의 아나운서이다. 두 사람은 1년 반 넘게 사랑을 키워오다 최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다. 결혼 날짜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앤디는 19일 자신의 SNS에 손으로 쓴



앤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고요 따뜻

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로도 신화의 앤디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앤디의 한 측근에 따르면 예비신부의 직업은 제주 MBC 아나운서로, 현지에서 방송 일을 하는 틈틈이 서울을 오가면서 앤디와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디 역시 평소 취미로 가장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자주 찾았다.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신화의 공식 SNS에도 “마음 따뜻하고 다정한 신화의 막내 앤디가 소중한 인연과 함께 아름다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며 팬클럽 ‘신화창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

앤디는 신화 멤버 가운데 세 번째로 유부남이 됐다. 앞서 에릭(문정혁)이 배우 나혜미와 2017년 결혼했고, 전진(박충재)이 2020년 류이서와 결혼해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신혼의 달콤함을 전담하고 있다.

1998년 ‘해결사’로 데뷔한 신화는 ‘브랜 드 뉴’, ‘와일드 아이즈’, ‘T.O.P’ 등의 히트곡을 내놓고, 최장수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해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